다윗의 황당한 사람 보는 안목

(사무엘하 19:1~43)

11.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3.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황당한 사람 보는 안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다윗의 황당한 사람 보는 안목'
여러분께서는 사람 보는 안목(眼目)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면 대부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여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친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손해를 입히고 사라진다면 '나는 사람 보는 안목이 없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했는데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게 되면 '사람 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일본의 TV에서 "남자에게 버림을 받지 않는 여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남자를 보는 안목이 없는 여자를 진단하기 위해 9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는 키 큰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A. 키 큰 남성을 고집하는 편이다 / B. 키 큰 남성을 고집하지 않는 편이다) 두 가지로 대답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미 육군 사관학교의 졸업생 672명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 키 큰 쪽이 작은 쪽보다 이혼율이 두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 큰 그룹이 재혼율도 높았습니다. 즉 키가 큰 남성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 타인 보다 유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 중에도 배우자가 맘에 들지 않을 때에 쉽게 이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를 좋아해줄 여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 큰 남자를 선택한 여자는 남자보는 안목이 없는 여자로 판명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자에 답장을 성실하게 보내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A. 답장을 바로 보내는 남자 / B. 답장을 성실하게 보내지 않는 남자). 저는 B에 속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자 보내는 걸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A에 속한 남성은 자신과 같은 성실함을 여성에게도 강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장기화되면 내가 한 만큼을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를 관리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잦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스토커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문자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탁을 잘 들어주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끌리는가?'라는 것입니다. (A. 잘 들어주는 남자 / B. 그렇지 않은 남자). 여성이 바라는 대로 부탁을 들어주는 남자일수록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악화될 때에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자기주장이 강한 남성일수록 즉 여자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는 남자일수록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9장의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자 오히려 압살롬을 진압한 군인들이 돌아올 때에 죄를 지은 것처럼 왕의 눈치를 보며 의기소침해합니다. 이 모습을 요압이 보자 화가 나서 다윗에게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라고 따지면서, 지금 큰 상을 베풀고 잔치를 벌여도 부족한 판에 이들을 민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닦고 사람들을 대할 때 반란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마음을 돌려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았는데 유다지파는 압살롬의 모반에 앞장섰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어 같은 지파이고 골육인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나름대로 유화정책을 써서 그들에게 돌아올 명분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할 아마사가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스루야와 아비갈이라는 두 누이가 있었는데, 스루야가 낳은 아들이 다윗을 따르던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었고, 아마사는 아비갈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이고,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 간이었습

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을 진두지휘했었던 총 사령관이었는데 요압의 군대장관 자리를 주면서 다윗이 13절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라는 맹세를 하는데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돌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받아들였는데 요압이 죽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밉게 볼 수는 있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복귀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요압의 자리를 빼앗아서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줄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사건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요압을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요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패륜이고 정치적 맥락에서도 반란입니다. 율법에 ‘아버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고 압살롬은 골백번 죽어 마땅한 자인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사들을 민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나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은 정치적 경륜이 전혀 드러나질 않습니다. 언뜻 화합을 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은 다윗의 유다지파의 편애로 인해서 요압은 또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데 제가 요압이라도 아마사를 죽이겠습니다. 또한 유다지파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왕으로 귀환하는 것을 맞이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 절차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불량배 세바의 선동에 의해 다시 다윗을 배신하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다윗은 왜 이랬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도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별하는 것을 안목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의 안목은 내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자신의 군대장관으로 삼는 다윗에게는 다른 안목이 있었는데 할례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골리앗 사건에서 삼상17: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골리앗 한 명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의 관점은 할례를 받았는가를 보았습니다. 삼상17: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하러 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할례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사인으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급박한 상황보다 어떤 절박한 현실보다 어떤 무시무시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심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의 화합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사람 보는 안목의 기준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엮을 때 할례권 안에 있는 자들과 바깥에 있는 자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형제와 같은 자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야 하는 존재이고 살려두고 조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다윗이 가졌던 최상의 가치는 화합이었는데 하나님의 근원에 각자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사가 반란군의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받은 유다지파 사람이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회유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넬이 다윗 왕권에 반대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떼어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왕의 첩을 취했다는 이스보셋의 쓴 소리에 배신하고 다윗에게 왔을 때에도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압과는 왜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일까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며 다윗의 모든 치적에 공을 세웠던 중요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도록 허락 받은 자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나 아마사의 이전 죄를 묻지 않고 이제부터의 화합을 중시했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준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오직 할례 받은 사실만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문제시하는데 그들을 가까이 두는 것은 다윗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당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오히려 황당한 것은 그들을 등용했던 다윗의 안목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안목이 황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 혈육 상 선민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마음속에 흐르는 자가 곧 혈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볼 때나 거지를 볼 때나 길거리 창녀를 볼 때나 누구든지 언제나 이러한 안목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자인지 이 땅의 길을 따르는 자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성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의 답장을 빨리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키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예표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나라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사람 보는 안목을 바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을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와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며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다운 정치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과장이라면 위로는 부장님을 잘 모시고, 아래로는 직원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 물으며 관계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그 회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을 왕의 자리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다윗 같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관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서 보기에는 황당하기만 했던 다윗의 안목이 우리의 안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